

김부겸 지지 나선 홍준표... “이럴 수가” 국힘 ‘발칵’

洪 “민주 지지가 아니라 중앙정부와 통하는 사람 필요”
金과 연대 가능성까지 부상... 국힘 대구선거 설상가상
당내 “당대표 두 번씩이나 한분이 어찌 그럴 수 있나” 격앙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2일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대구시장에 출마한 김부겸 전 국무총리 지지를 선언했다. 김부겸-홍준표 연대 가능성도 점쳐지면서 국민의힘 내에서 파장이 일고 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SNS에 “후임 대구시장 이 능력 있고 중앙정부와 타협이 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며 “민주당을 지지한 게 아니라 김부겸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부산은 스원보터지역이라서 민주당이 가덕신공항도 해주고 해수부도 이전에 해 주지만, 대구는 막무가내식 투표를 하니까 민주당 정권이 도와주지도 않고 버린 자식 취급을 하는 것”이라고 적었다. 홍 전 시장은 이어 “대구 국회의원들은 당 때문에 당선된 사람들이지 자기 경쟁력으로 된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광역 자치단체장은 행정가이지 싸움꾼이 아니다”며 “대구에 도움이

된다면 당을 떠나 정치꾼이 아닌 역량 있는 행정가를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전 시장은 지난달 25일에도 “김부겸 전 총리와는 한나라당 시절 같은 당에 있으면서 호형호제했었고, 그가 민주당으로 건너간 후 그 관계는 변함이 없다”며 김 전 총리와의 인연을 소개했다. 또한 “지금 나온 후보자들 중 대구를 다시 일으켜 세울 인물이 보이지 않는다”며 “김 총리가 나서주면 좋겠다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작금의 대구는 쇠락 일로에 들어가 있고, TK신공항과 신산업 유지를 하지 않으면 몰락의 길로 간다”며 “막대기만 쫓아도 국민의힘이 된다는 논리는 대구 시민들의 질박함을 모르는 정치인들의 신념을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당혹스럽다는 반응인 가운데, 홍 전 시장이 직접 김 전 총



홍준표(왼쪽) 전 대구시장이 2일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대구시장에 출마한 김부겸 전 국무총리 지지를 선언했다.



연합뉴스

리 지원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장동혁 대표 특보단장인 김대식 의원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SBS라디오에 출연해 ‘홍 전 시장이 대구시장 선거에서 김 전 총리 손 들어줄 수 있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우리 당에서 당대표를 두 번이나 하고, 원내대표하고, 또 5선 국회의원하고, 경남도지사, 대구시장, 대통령 후보까지 했는데 그렇게까지 하겠느냐”

며 “그렇게 안 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대구시장 선거에 나선 주호영 의원 MBC 뉴스투데이 인터뷰에서 홍 전 시장과 김 전 총리 연대 분위기에 대해 “그런 일은 생기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어 “홍 전 시장에 대해서도 코멘트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우리 당 이름으로 시장을 하셨던 분이 민주당을 돕는 일은 저는 그런 일은 안 생각 거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진중오 의원은 홍 전 시장을 원색 비난했다. 그는 SNS에 “말로는 민주당을 지지한 게 아니라 사람을 지지한 거라고 하는데, 그 속내가 뻔히 보인다”며 “그저 국민의힘에서 자신을 대선후보로 안 해줬다고 밀도 끝도 없이 뒷팔”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본인 말씀처럼 제발 ‘정계은퇴’ 좀 하시고 노년을 보내시기 바란다”며 “그것이 보수 모두가 원하는 길”이라고 적었다.

김진강 기자 kjk2156@skyedaily.com

국채 발행 않는 ‘빛 없는 추경’
초과 세수 25조2000억 활용

〈1면에서 계속〉 그러면서 “UAE와의 협력을 통한 원유 2400만 배럴 도입을 비롯해서 대채 공급선 다변화 노력도 철저하게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과거의 위기 사례들을 돌이켜 보면, 예상하지 못한 외부 충격에 선제 대응이 늦어질수록 우리 경제와 국민이 입은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졌다”며 “이를 반전교사 삼아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경제 전반과 국민 일상에 미칠 영향을 꼼꼼하게 살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안은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빛 없는 추경’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의원들의 도움으로 경제상황이 개선된 덕분에 ‘증시반도체 경기 호황 등에 따른 초과세수 25조2000억 원과 기금 자체 재원 1조 원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추경안 세부 내용을 보면, 먼저 고부가담 완화 3대 패키지에 10조 원 이상을 투자한다. 현재 시행 중인 석유 최고가격제 운영에 필요한 재원과 환율, 유류비 변동 대응을 위해 목적에 비비로 5조 원을 편성했다. 고부가 과해지원금도 새로 마련된다. 또한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600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기본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2조8000억 원 규모의 민생안정 대책도 마련했다. 최소한의 먹거리와 생활품을 무상 제공하는 ‘그냥드림센터’를 기존 150개소에서 300개소로 두 배 확대한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위기의 파도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켜줄 방파제이자, 위기 이후 대한민국이 도약할 발판”이라며 “위기 극복의 성패는 속도에 달려 있다. 이번 예산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진강 기자 kjk2156@skyedaily.com

“좌파에 대구 넘어가면 인민공화국 된다”

李, SNS서 황당한 색깔론 들먹
주호영과 ‘경선 원점 재검토’ 주장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된 주호영 의원과 이진숙(사진)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잇따라 ‘경선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고 나섰다. 특히 이 전 위원장은 철지난 색깔론을 들고 나와,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SNS에 “(최근 사퇴한)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6·3지방선거와 관련해 공관위가 할 일은 거의 마무리됐으며 사퇴한다고 밝혔지만, 대구시장 공천배제 후폭풍과 관련이 있다고 저는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때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장동혁 당대표는 한시바삐 사태 수습을 위한 조치를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위원장은 특히 “행정부와 입법부를 장악한 민주당은 사법부마저도 위협하고 있다”며 “제4부라고 하는 언론마저 권

력을 제대로 감시·견제하지 못하고 권력의 ‘에완전’ 노릇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지방 정부까지 좌파에 넘어가게 되면 대한민국은 ‘인민민주주의공화국’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될 것”이라며 색깔론을 들먹였다. 이 전 위원장은 이어 “지난 3월22일 밝힌 대로 대구시장 경선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도록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며 “공정 경선을 통해 국민의힘 후보가 최종 결정된다면 대구 시민들은 대한민국의 자부심인 대구를 좌파에게 넘기는 선택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위원장은 “이제부터는 오직 6·3지방선거의 승리만 생각하고 매진해야 한다. ‘빨간색 옷이 맞는다’ ‘흰색 옷이 맞는다’라며 당 지도부를 혼드는 것은 지방선거의

승리를 방해하는 해당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저를 포함한 출마자들은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자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 존엄을 아끼며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며 “분탕질과 이간질로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있는 세력은 선거 패배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이기적인 반대세력으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이날 문화방송(MBC) ‘뉴스투데이’에 출연해 “김영환 총부지사와 저의 논리 구조가 같기 때문에 가처분이 받아들여질 것”이라며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여 다시 경선을 하는 것이 유후증을 줄이고 승리하는 길이지, 다시 불복해서 항고하고 시간을 끌면 공천하지 말자는 말이나 마찬가지로”라고 주장했다.

김진강 기자 kjk2156@skyedaily.com

스카이 만평 김용덕



누구나 꿈꾸면서
아무나 이룰 수 없는 사랑에 대한 성장소설이면서
아픈 시대를 살아낸 청춘들에 대한 시대소설

모든 사람의 사랑 이야기 그리고 운명적 사랑에 대한 서사시



맹세희 지음 | 272쪽 | 17,800원 | 양문출판사

58세 신예 작가리는 독특한 이력의 맹세희 첫 소설

인생은 인간의 의지와 신의 의지의 변증법이다.

- 에필로그 중에서

인생과 인간과 신에 대한 이야기,
그 중에서도 모든 남과여의 사랑과 갈등
그리고 누구나 꿈꾸는 운명적 사랑의 서사시를 그려내고자 했다.

-작가의 말 중에서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모스크바

라라의 랩소디